

이인기 원장과 함께하는 실전 수의치과

5회 - 치수염(pulpitis)



이인기
튼튼동물병원 원장
medivetmen@hanmail.net

Q. 스켈링을 한후에 송곳니 치아색이 아래 사진과 같이 핑크색으로 변했고, 밥을 잘먹던 강아지가 스켈링후에 오히려 식욕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인턴선생님이 의욕적으로 원장인 저보다 더 열심히 스켈링을 해주었는데, 치아의 색이 변한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것인지요?



A. 우선 치아의 색이 변한것은 치수염(pulpitis)입니다. 치수염은 4가지 단계로 색이 변합니다.

1. initial trauma시기



■ 1단계 : 핑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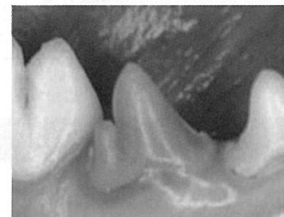
2. 치수가 괴사되어가는 시기



■ 2단계 : 보라색

■ 3단계 : 노란색

3. 치수가 완전히 괴사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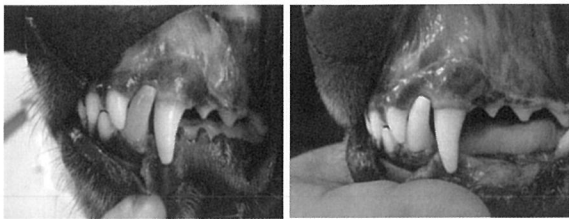


■ 4단계 : 회색

위의 사진과 같이 치수염은 4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인 initial trauma시기에는 핑크색으로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치수가 괴사되는 시기인 2단계인 보라색부터는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1단계의 핑크색이라면 보호자에게 약물치료를 권해볼수 있고, 사용되는 약물은 amoxicillin계통의 약물을 사용하면 되고, 소염진통제로는 NSAID를 같이 사용하면, 항생제만 사용할때보다 소염효과와 함께 Pain control도 가능하기 때문에 좋습니다.(Clavamox+NSAID)

아래 사진을 보면 치수염 1단계인 핑크색이었던것이 치료 후에 정상색으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 치료전 핑크색인 송곳니

■ 치료후 정상색으로 돌아온 송곳니

만약 단계가 1단계가 지나서 2단계로 진입을 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신경치료를 하거나 발치를 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차피 신경이 과사되었으므로 치아의 통증이 심하고 방치시에는 이로 인해서 치근단 농양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신경치료 혹은 발치를 해주어야합니다.

치수염이 일어나는 이유는 치수염 용어 자체와 같이 치수에 염증이 생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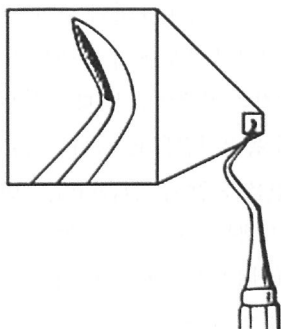
이렇게 치수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원고에서 다루었듯이 CF(Complicated Fracture)가 많고, 사람의 경우는 CF의 원인이 충치가 대표적이겠지만 강아지에게서는 마모된 치아 (Worn teeth)에 의한 CF가 많습니다. 아울러 위의 인턴선생님이 열심히 스켈링을 해주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히려 열심히 해주어서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에 의해서 치수가 데미지를 입어서 치수염이 생기는것입니다.

스켈링을 할때의 주의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다음 원고에서 다루기로 하고 금일은 치수염에 대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1. Side tip

스켈러를 할때는 스켈러의 팁끝으로 스켈링을 하는것이 아니라 팁의 옆면 사이드를 이용해서 스켈링을 하여야합니다. 아래 사진 참조



2. 한치아에서 15초이하

한치아당 15초이하로 스켈링을 하여야합니다. 한치아에서 15초이상 스켈링을 한다면 치수에 데미지를 받아서 치수염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치아의 치석이 많아서 15초이상 스켈링을 하여야 한다면 옆의 치아를 스켈링한후에 방금 전 치석을 제거한 치아로 돌아와서 치석을 제거하거나 다량의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스켈러 팁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치석을 제거하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현재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치아의 색이 변한것은 치수염이고, 히스토리상 열심히 스켈링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치석이 많아서 열심히 제거하다보니 한치아에서 너무 오랫동안 치석을 제거해서 초음파에 의해서 치수가 데미지를 입어서 치수염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현재는 1단계인 핑크색 단계여서, Clavamox+ NSAID의 조합으로 1달정도 처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